

# 《한시기행》 선정기

## 한시의 음울을 탄 역사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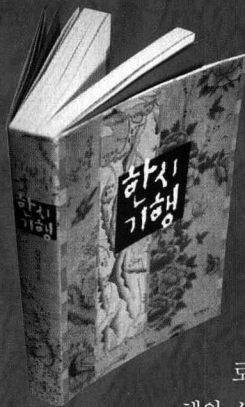
‘우리가 사는 땅을 더럽혀선 안 된다. 그건 세상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런 결기 하나로 환경운동에 몸을 던지고, 온 나라 구석구석의 병든 초상을 그려냈다. 정작 자신의 육신에 피리 튼 질병의 짙은 모른 채... 환경만화 《하나뿐인 지구》는 만화가이자 환경운동가인 신영식 씨가 그렇게 하나뿐인 목숨을 걸다시피 하며 내놓은 것이다. 내키기만 하면 누구든 책 한 권 정도는 어렵잖게 펴내는 요즘 세태와는 획을 긋는 태도다. 하긴 <출판저널> 서가에도 것처럼 혼을 바친 저작물들이 다달이 끊이지 않는다. 심성에 하등 도움 안 되는 책 같잖은 책들과는 유전인자가 다른 것들이다. 그나마 우리 시대의 정신과 마음이 일말의 충기와 향기를 잃지 않는 까닭은 그 때문이 아닐까.

책 한 권 짓기 위해 얼마나 땀을 들었나. 손목 글썽 이상의 영혼의 땀방울이 깃들었다면 참으로 좋은 책 아닌가. 그런 상식에서 골라본 책들이 장하준의 《캐도난마 한국경제》, 이강국의 《다보스, 포르투알레그레 그리고 서울》, 박노자의 《나는 폭력의 세기를 고발한다》, 최호근의 《제노사이드》, 고길섭의 《부안, 끝나지 않은 노래》, 그리고 심경호의 《한시기행》과 신영식의 《하나뿐인 지구》다.

또 시공간적 삶의 근원이나 값어치를 진지하게 묻는 책들도 빼놓을 수 없었다. 윤정모의 《수메리인》(상·하)과 김선우의 《김선우의 사물들》, 진동선의 《노블엘 뽀또그라피》, 정해종의 《터치 아프리카》, 황선미의 《푸른 개 장발》, 현진오의 《사계절 꽃산행》, 강영조의 《풍경의 발견》 등이 <출판저널> ‘이달의 책’ 후보군에 이름을 더했다.

하나같이 탄실한 명분을 지닌 책들이어서 우열을 가리는 게 여간 힘들지 않았다. 그 낫고 못함을 식별한다는 자체가 계면적이고 송구스런 일이었다. 그럼에도 <출판저널> 기자들로서 선택의 방도가 없었다. 만나질의 시간을 할애, 그나마 손길과 눈질이 더 간 책 가운데 《캐도난마 한국경제》, 《나는 폭력의 세기를 고발한다》, 《한시기행》, 《하나뿐인 지구》를 유력한 후보 도서로 뽑아들었다.

경제나 사회현상에 대한 뒤집기식 화법이 유행이긴 하나 《캐도난마 한국경제》는 센세이셔널한 뒤집어보기도 아니요, 독선에 치우친 ‘나홀로’ 담론도 아니다. 해법이 묘연한 한국경제를 극히 이성적인 태도로 명쾌하게 진단하며 처방에 골몰한 책이다. 박정희 개발독재의 실체와 IMF외환위기의 정체를 꿰뚫어보고, 개혁과 재벌과 성장의 의미를 진지하게 분석하고 있다. ‘과거’의 명과 암을 변증하되, 자본과 노동이 서로 발등을 찍고, 신자유주의와 시장민주화가 엇갈리는 현실에 그 의미를 이입하고 있다. 궁극엔 모두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과 후대를 위한 조감도를 제시하는 데에 이 책의 명쾌함이 있다.



《나는 폭력의 세기를 고발한다》는 ‘힘’으로 표상된 근대적 변신의 실체를 음미하고 있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잘 안다는 박노자 교수의 인문적 성찰이 돋보이는 책이다. 토착종교 또는 기독교와 같은 외래 문명이 던진 근대적 의미는 무엇인가. 개화파가 꿈꾼 경찰국가나 징병제, 부국강병과 같은 ‘근대적 폭력’의 함의는 또 무엇인가. 박정희의 ‘민족중흥’, 그리고 민족의 힘은 또 다른 우리 안의 폭력성은 아닌가. 저자는 이를 ‘머리와 마음과 근육과 기억과 체험의 힘’으로 설명하고, 내재된 폭력과 등치시키며 한 세기를 재발견하고 있다.

《하나뿐인 지구》는 작가 신영식이 평생의 환경운동 체험을 만화로 그려낸 책이다. 온갖 시련과 편견과 오해를 딛고 전국의 오염된 현장을 누비며, 직접 보고 들은 생생한 이야기들을 알기 쉽고 재미있는 만화로 펼쳐낸다. 1부에선 깃벌과 핵폐기물, 공장 부근의 공해와 소음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육성을 가감없이 전한다. 2부에선 환경이 삶에 미치는 다양한 작용과 모습을 전하며,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책에 실린 내용들은 모두 작가가 발로 뛰며 르포타지한 것인만큼, 읽는 이에게 강렬한 호소력으로 다가든다.

자연과학·사회과학적 성찰과 인문학적 묘사의 융합은 색다른 묘미를 안겨준다. 문학지리나 건축철학, 또는 풍속과학은 그렇게 지적 시야를 넓혀주는 반가운 저작물들이다. <출판저널> 기자들이 고민 끝에 술한 양서를 제치고 《한시기행》을 ‘이달의 책’으로 뽑은 것도 그런 ‘반가움’ 때문이다. 글을 쓰고 생각하고 행동함에 있어 그 대상의 영역과 경계를 허무는 일. 그것이야말로 책을 통한 지성의 몫이란 생각도 함께 작용했다.

《한시기행》은 그 몫에 충실한 서물이다. 선조들의 한시는 한 시대의 서정과 심성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을 터. 팔도강산의 오묘한 풍광과 당대 사람들이 기대 살았던 자연과 풍경과 인심을 담은 ‘글로 된 수채화’다. 책은 고지도나 지리서, 각종 문헌을 근거로 옛 명인들의 한시가 소개하는 ‘수채화’ 속 이야기로 읽는 이들을 안내한다. ‘성난 바다와 험준한 마천령, 함경도’를 필두로, ‘강물은 예순 고을을 가르고, 경상도’ 편에 이르는 <조선팔도와 한시>, 시적 서정에 얽힌 금강산, 백두산, 탐라의 풍광을 읊긴 <역동의 자연과 생활>, ‘삼각산 남쪽 한강수 머리, 서울’에서부터 평양, 송도, 경주를 섭렵한 <옛 도읍의 역사미> 등은 <택리지>나 <동국여지승람>의 혼을 현대적 언어로 되살린 듯하다. 또한 고조선과 백제의 서정, 고구려의 기상을 더듬는 <고대로의 여행>은 한 편의 숙연한 역사기행이다. 이만하면 흠결없는 역사지리서로 이 책을 치켜세워도 무방하다 싶다. ■